



이 영 관

도레이세한 대표이사 사장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제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수십년의 성장 속에서 국가 산업 발전과 그 궤를 함께하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성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섬유 및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이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태동한 고분자학회는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소재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정부 간의 중추적 교량의 역할을 훌륭히 이행하면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핵심인력 양성에도 공헌해왔습니다. 이후 산업이 벌크산업에서 전기전자분야, 반도체분야, 정보통신분야, 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분야, 우주 항공분야 등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발맞추어, 관련분야의 학문 및 기술발전의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제 장년을 맞은 고분자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합니다.

고분자 관련산업들이 첨단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 나노신소재 등 고성능·고기능성 분야로 변모하고 있으며, NT, BT, IT, ET 분야 및 이들의 융합기술분야에서 고분자 신소재를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날로 격화되어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관련과학 분야와 대학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고분자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연구소-산업계-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선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계는 기초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이를 기업에 전수, 상용화를 추구하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제품 및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유관기관은 각종 제도와 규제의 정비를 이루며, 아울러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핵심인재 육성에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고분자학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인간생활과 과학발전을 위하여 산업, 과학, 의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응용이 요구되는 핵심학문입니다.

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종사자 그리고 전공 학생들이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소임에 임한다면 한국의 고분자학문과 관련 산업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한국 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